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법원주림〉 〈종경록〉 서로 증험 합시다”

추사는 불경을 참증하기 위해 초의의 상경을 재촉하는 편지를 자주 보냈다. 〈완당전집〉(여초의) 35신도 초의의 상경을 재촉하고 있다. 편지의 말미에 “삼호어수(三湖漁 魚)라는 호를 사용했는데, 삼호어수란 “삼호에서 고기 잡는 늪은이”라는 뜻으로, 삼호는 지금의 마포일대이다.

그는 제주에서 해배된 후, 노량진, 마포, 금호동 일대에서 거처하다가 1851년 7월 22일, 북청으로 유배되었다. 북청으로 유배되기 전, 그가 탐독했던 불서는 〈법원주림〉과 〈종경록〉이었다. 그는 초의와 함께 불경을 참증하기를 절실히 원했는데, 이는 당시 중국 불교계의 흐름을 초의에게 이해시키려는 배려였을 뿐 아니라 초의의 높은 식견으로 자신의 불교적 견지처가 타당함을 검증하고 싶었던 듯하다. 〈완당전집〉(여초의) 35신에는 〈법원주림〉과 〈종경록〉을 탐독하면서 초의의 상경을 독촉하는 내용이 보인다. 대략 그가 마포에 거주했던 시기인 1851년 신정(辛丑) 6일에 보낸 것으로 짐작되는 이 편지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완당전집〉(여초의) 35신

불경 참증 위해 초의 상경 재촉

치통 앓던 초의를 희언으로 위로

추사 곁 맑은 차 우정의 매개물

두은 눈으로 간신히 몇 자 적습니다. 따뜻한 봄에 해가 길어지면 빨리 와서 〈법원주림〉, 〈종경록〉을 읽는 것이 지금이 묘한 일 일겁니다. 이만... 신정 6일 삼호어수 (珠林宗鏡新編語錄 不欲一來相證耶 大慧一案打破無餘蘊 是大快處耳 新茗摘來幾片 留取將與我來耶 欣庶諸納處 一討出 齋速便或專送一納未爲不可耳 金世臣亦安念念 節齋 去分之留之 世間又是一年 山中日月亦復回新 老古維作歲事如世間之羔花勝耶 忽從轉 見書 茶包 爲茶香觸便覺眼開 書之有無 本不足計也 第齒疼固可悶 獨喫好茶 不與人同 是龕中泥佛亦頗靈驗 施之律耳 可笑 此狀不得喫茶而病 今且茶而愈矣 可笑 僕人立促 觀此支眼作數字 春暖日長 勸錫來 讀宗鏡珠林至妙 不宜 辛丑六日 三湖漁 魚

초의가 보낸 차를 받고 “차 향기를 맡으니 곧 눈이 떠지는 것” 같았던 추사였다. 한 해가 저물고 다시 한 해를 맞아 “승속이 같은가”라고 묻던 추사의 말 속엔 다정한 속내가 묻어났다. 이 무렵 초의는 치통을 앓고 있었다.

마음이 쓰였던 추사는 “혼자 좋은 차를 마시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기”에 감실의 부처님의 “영험한 법음을 베풀 것”이라는 희언으로 초의를 위로하였다. 자신의 처지 또한 여유롭지 않았던 강상 시절, 추사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차였고, 불경을 탐독하며 세월을 잊으려 했다. 절세(絕世)의 의로운 군자, 추사의 곁에서 그를 위로했던 맑은 차는 이들의 우정을 이어주었던 매개물이었다.



박동준(동아시아 문화연구소장)

새로 편찬한 어록 〈법원주림〉, 〈종경록〉을 한 번 와서 서로 증험하고 싶지는 않으신가. 대혜의 공안을 타파해 미진함이 없으니 매우 통쾌할 뿐입니다. 햇 차를 몇 편이나 만들었습니까. 잘 보관하였다가 나에게도 보내 주시려는가. 자흔과 향훈스님이 만든 차도 일일이 색출하여 빠른 인편에 부쳐 주십시오.

혹 스님 한 분을 정해 (그에게 차를) 보내신다 해도 불가하다고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세신도 편안한가요. 늘 염려 됩니다. 단오절 부채(節扇)을 보내니 나누어 가지십시오. 세간엔 또 한 해가 오는데 산중의 세월도 다시 새 해가 되니 노장(老古

유쾌한 입담으로 BBS 음성공양 24년

방송인 김병조 씨 (조선대 교육대학원 초빙교수 겸 명예 평생교육원장)

“방송한다는 생각보다는 늘 절에 온다는 마음으로 24년 불교방송국을 왔어요. 그래서 방송이 힘들지 않았어요. 인기관이나 출연료를 위해 방송을 하지는 않았죠. 음성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불자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 늘 행복했습니다. 전국에 계신 팬 여러분들 그리고 방송국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12월 개편을 맞아 불교방송 ‘이야기쇼’를 떠나는 불자 방송인 김병조 씨는 이렇게 소감을 얘기한다. 마지막 방송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11월 26일 노원구에 위치한 그의 자택을 찾았다. 잘 가꾸진 화분과 통나무 다락으로 단아하게 꾸며진 거실은 연예계라는 화려함에 묻히지 않고 올곧게 자신의 길을 걸어온 그의 성품을 닮아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예능 MC에서 현재 〈명심보감〉을 강의하는 인기 교수로 세상을 두루두루 밟고 있는 불자 방송인 김병조 씨. 그는 불교의 가르침을 생활속에서 실천하며 세상을 아우르는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었다.

늘 가족 같았던 불교방송

1990년 불교방송 개국 이래 24년 동안 그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방송을 진행해왔다. 매주 월요일~일요일 오후 9시 15분부터 청취자들을 찾아가는 ‘이야기 쇼’는 트로트 등 성인가요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불교방송은 포교강화를 위해 밤 9시~12시 불교 프로그램을 확대편성하면서 이야기쇼 폐지를 결정했다. 그간 김 씨의 공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담아 불교방송은 감사패를 증정했다.

물론 불교방송의 유일한 성인가요 프로그램이자 24년 동안 김병조 씨가 진행을 맡아왔던 이 프로그램의 폐지에 대해 불교방송 내에서도 안타까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김 씨는 가벼운 마음으로 방송을 내려놓을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힌다.

“1990년 5월 1일 불교방송 개국일이 제 생일과 같은 날이었어요. 참 기이하고도 특별한 인연이죠. 그래서 그런지 방송국 식구들과는 가족 같이 각별한 사이로 지냈어요. 불교방송 작가 아나운서 피디 기자 등의 결혼식 주례도 많이 썼죠. 한번은 불교방송 직원의 딸 결혼식 주례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날이 수년 동안 진행을 맡아오고 있던 연등축제와 겹쳤어요. 사회를 포기하고 주례를 썼죠. 그만큼 불교방송 식구들이 저에게는 중요해요. 이번에 방송을 그만둔다고 하니 직원들이 눈물 흘리며 서운해 하네요.”

그는 인생 잘 산 것 같으며 너털웃음을 보였다. 김 씨가 이렇게 오랫동안 불교방송을 진행해온 이유는 신실한 불자였던 어머니의 힘이 컸다. 어머니는 10년 기도로 7대 중손인 김 씨를 낳았고 하루도 기도를 거르지 않았을 만큼 신실한 불자로 살아왔다. 노안으로 눈이 안 좋았던 어머니는 늘 김 씨의 방송을 라디오로 들으며 기뻐했다. 그래서 그는 한 달 출연료가 기업체 하루 강사로에도 못 미치는 액수를 받고도 불교방송 진행을 멈추지 않았다.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는 불교방송 채널을 늘 고정시켜 놓고 제 방송 시간에 맞춰 방송을 듣고 주무셨어요. 저도 늘 생방송 들어가기 전에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를 하고 방송을 했죠. 말년에는 서울 저희 집에서 모셨는데 절을 못할 정도로 쇠약해진 몸으로 삼체만 구부러 108배를 하셨어요. 저희 집사람도 정말 존경스럽다고 할 정도로 신실한 불자가 저희 어머니세요. 어머니는 제가 불교방송에 나오는 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24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보람도 컸다. 많은 팬들이 그에게 격려 편지를 보내 주었는가 하면 때로는 인생 상담을 의뢰하기도 했고 어머니가 들던 방송을 맡아 듣고 있다는 사연도 전해왔다. “오랫동안 방송을 하니 청취자 분들이 저를 법사로 알고 인생 상담을 해주기도 해요. 저도 제 경험에 비추어 그에 대한 답을 해드리죠. 선물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고추 감자 계장 과일 염주 등 방송국 담당자들에게 슬쩍 건네주고 가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 방송을 한다는 생각보다 가족과 함께한다는 생각이 들만큼 너무 정겹고 좋았죠.”

인기에도 세금이 있더라

김병조 씨는 80년대를 풍미했던 개그맨이자 MC다.

배추머리는 그를 상징하는 트레이드마크였고 ‘지구를 떠나거라’ ‘나가 놀아라’는 대한민국 남녀노소라면 누구나 알만한 유행어였다. 또 그가 진행했던 ‘일요일 밤의 대행진’은 MBC의 간판 프로로 당시 최고 시청률을 올리며 큰 인기를 모았다. 그렇게 7년 동안 인기 정상을 달리던 그에게 큰 시련이 왔다. 87년 한 정당의 비공개 모임에 참석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했던 발언이 기사화되면서 세상의 비난을 받게 된다.

“하루아침에 가장 인기 있는 개그맨에서 가장 욕을 먹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던 인기가 순식간에 땅에 떨어졌고 육신 평생 먹어야 할 욕을 그때 다 먹은 셈이죠. 그때 알았어요. 인기에도 세금이 있다는 걸요.”

큰 상처를 입었던 그는 절을 찾아다녔고 스님들에게 위로를 얻었다. 당시 다녔던 절이 인과선원, 주왕암, 개심사, 화계사 등이며 그때 만났던 스님이 수경 스님(前 화계사 주지), 서운 스님(前 조계종 종장) 선광 스님(前 개심사 주지) 등이다. 특히 당시 개심사에서 지장보살 개공불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막다른 곳에 다니느라 생각나는 곳이 절이었어요. 절에서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또 수없이 많은 스님들이 저를 위로해 주셨죠. 그 시간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인기도 허망한 것이죠. 모든 게 제행무상입니다.”

1990년 개국 이래 24년 방송

어머니 당부 받들어 장기 진행

불법으로 행복 전하려고 노력

“불교방송은 늘 가족과 같이”

80년대 최고 인기 개그맨에서

87년 의도치 않은 정치발언으로

세상의 비난, 인기 허망함 깨달아

“당시 절은 가장 큰 위로처였다”

가족과 함께 신행활동 ‘행복

아들과 JTS 캠페인 사회도

이후로도 SBS 등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큰 재미를 느끼지 못했던 그는 대학후배의 권유로 광주방송 진행을 맡게 된다. “인기도 얻을 만큼 얻어 봤으니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제 고향이 전남 장성이고 광주고등학교를 나왔으니 광주방송에서 일하는 것이 곧 고향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일 이잖아요. 완도, 해남 땅콩마을 등 전라도 곳곳을 돌면서 방송을 하니 너무 보람되고 좋았습니다.”

이렇게 지역 방송에 전념하다보니 광주 조선대에서 강의 제의가 들어왔다. 학교 측에서는 연극영화학 강의를 제의했지만 김 씨는 〈명심보감〉 강의를 하고 싶다고 했다. 유학자였던 아버지 아래서 어린시절 〈명심보감〉을 공부해 왔기에 누구보다 이 강의에 자신이 있었다. “처음에는 향교 유림들의 반대가 심했어요. 개그맨 하던 사람이 〈명심보감〉 강의를 하니 그럴만했죠. 그런데 개그맨인 제가 〈명심보감〉을 강의하니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유머를 섞어 쉽게 설명하니 모두들 강의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100명이던 수강생이 600명이 될 만큼 인기를 모았죠.”

평생교육원에서 시작한 그의 강의는 교육대학원으로 이어지면서 교사와 교사지망생들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그는 15년 동안 매주 수요일 어김없이 광주로 내려가 강의를 한다. 개그맨에서 한학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로 새털을 거듭한 것이다. 그는 〈명심보감〉은 유불선이 다 들어 있다고 강조한다. “〈명심보감〉 자체가 마음을 밝히는 글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24년 동안 진행해 온 불교방송 ‘이야기쇼’ 마지막 진행 장면.



사천시 아카데미 〈명심보감〉 강의

www.shcandle.com

2014 삼 환 양 초

상담문의 031)766-0242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팩스 031)766-0233 농림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